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경제행복지수,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 목 차

---

## ■ 경제행복지수,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

Executive Summary .....	i
1. 큰 폭으로 상승한 경제적 행복감 .....	1
2. 2018년 경제전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	6
3. 시사점 .....	8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백   흥   기   산업전략본부장 (02-2072-6228, hkback@hri.co.kr)

신성장연구실    :   전   해   영   연   구   위   원 (02-2072-6241, hj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 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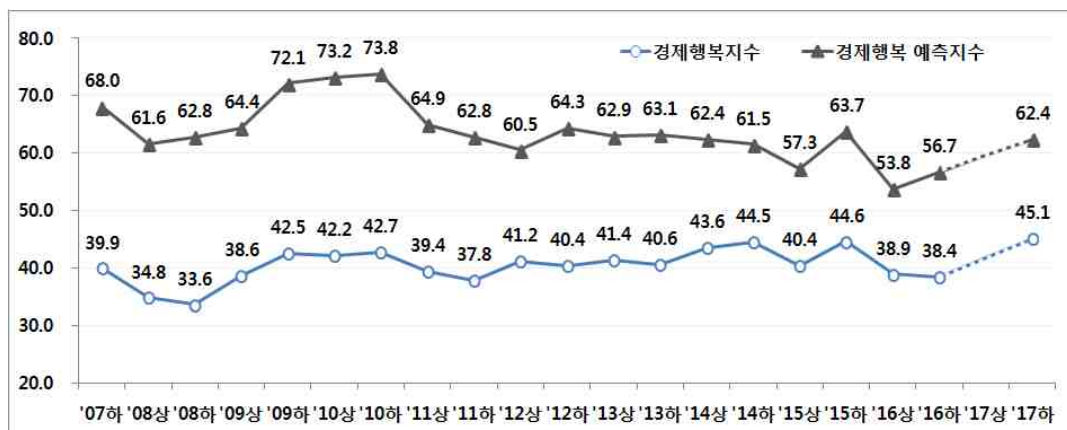
■ 큰 폭으로 상승한 경제적 행복감

(종합평가) 2017년 12월 실시된 제20회 경제행복지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은 100점 만점에 45.1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7년 국내외 경제 회복 및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대부분 항목, 그룹 내에서 지표 개선이 관찰되었다. 특히 자영업자(+13.2점), 40대(+9.4점), 소득 6천~8천만원(+12.7점) 그룹의 행복감이 크게 개선되었다. 더불어 미래 경제적 행복 전망을 나타내는 '경제행복 예측지수' 또한 2회 연속 상승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한다.

(항목별) 항목별로 '경제적평등', '경제적불안', '전반적행복감'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제행복지수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경제적평등'은 특히 20대 그룹이 체감하는 '경제적평등' 점수가 전회대비 20.9점 급등하면서 전회('16.12월) 16.7점에서 금회('17.12월) 28.0점으로 11.3점 상승하였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및 실업 불안 등도 완화되면서 '경제적불안'과 '전반적행복감'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반면 '경제적안정', '경제적우위' 등 2개 항목은 전회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직업별/연령별)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 그룹의 행복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그간의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행복지수가 전회조사('16.12월)의 28.1점까지 하락하였으나, 금회조사에서 41.3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특히 40대('16.12월 37.8점→'17.12월 47.2점)와 60대 이상(29.3점→37.7점) 그룹의 행복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 경제행복지수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7년 상반기(6월)에는 미조사.

**(소득별/자산별)** 모든 소득·자산별 그룹에서 경제행복지수가 상승했으며, 소득과 자산이 많아질수록 경제적 행복이 상승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의 중·고소득층의 경제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큰폭 상승하면서 저소득층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행복장애요인)** 응답자의 약 27%가 '소득감소'를 가장 큰 행복 장애 요인으로 꼽아 '소득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40대, 직장인과 공무원,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대출 이상은 모두 '자녀양육'이 가장 큰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20·30대는 주택문제, 40대는 자녀양육, 50대 이상은 소득감소 등 생애주기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018년 경제전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2018년 전망)** 조사 결과, 내년도(2018년) 우리나라 경기가 금년(2017년) 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전회('16.12월) 대비 15.9%p 증가한 21.5%를 기록해 2018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크게 늘었다. 다만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25.9%를 기록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보기에선 무리가 있다. 한편 국민들은 2018년 정부의 중점추진 과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꼽았다.

**(현안 인식)**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의 금리인상으로 소비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꼭 필요하거나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60% 가량이 최근의 금리인상에 따라 본인(가구)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자영업자, 연소득 8천만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등 그룹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점

향후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 개선세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 개선으로 경제적 안정감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주거·양육·노후생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큰 폭으로 상승한 경제적 행복감

○ (종합 추이) 2017년 12월 실시된 제20회 경제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45.1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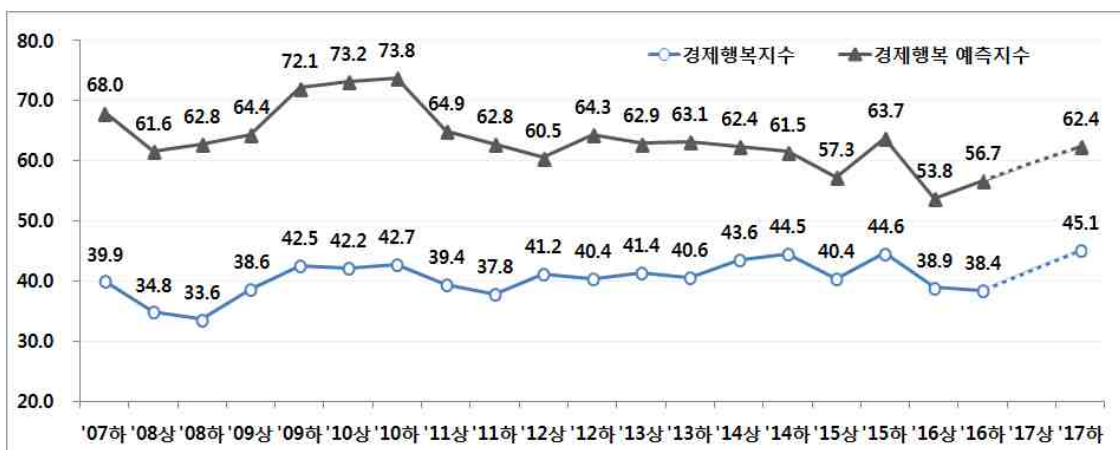
- 조사 결과 경제행복지수는 지난 제19회 조사('16.12월) 대비 6.7점 상승한 45.1점을 기록

- 2017년 들어 국내외 경제 회복 및 소비 심리 개선에 따라 경제적 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
- 대부분 항목, 그룹 내에서 행복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13.2점), 40대(+9.4점), 소득 6천~8천만원(+12.7점) 그룹의 행복감 개선이 관찰
- 응답자 특성별로 직장인(48.1점)과 공무원(56.8점), 20대(53.1점), 대졸이상(대졸 48.4점, 대학원이상 48.8점), 미혼자(48.9점)의 행복감이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 전망) 경제행복지수의 상승과 함께 미래 경제적 행복 전망을 나타내는 '경제행복 예측지수' 또한 2회 연속 상승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

-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 50점보다 높으면 낙관적 예측이 비관적 예측보다 많음을 의미(자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 금회 조사에서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62.4점을 기록해 제18회 조사('16.6월) 이후 2회 연속 상승

< 경제행복지수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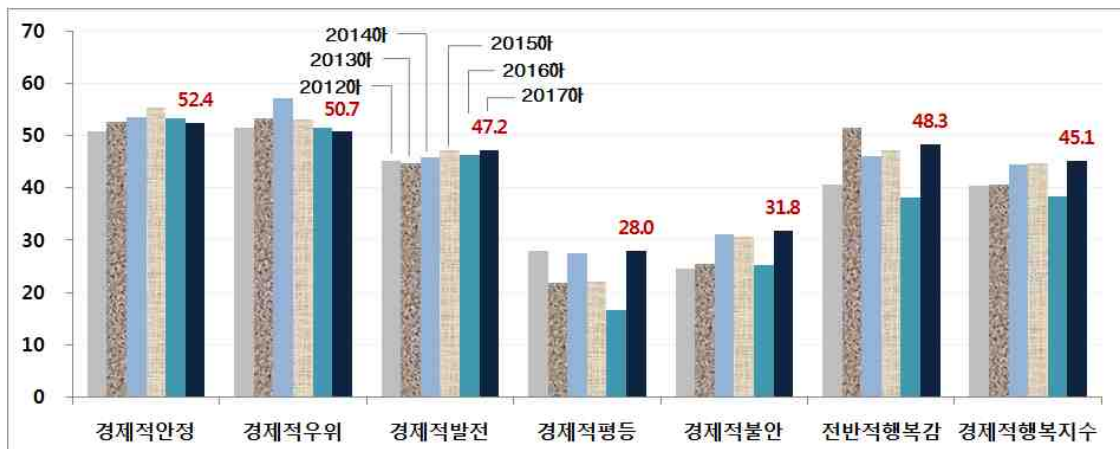
주1)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50점을 기준으로(최소 0점, 최대 100점) 50점보다 높으면 향후 경제적 행복에 대한 낙관적 예측이 비관적 예측보다 많음을 의미.

2) 2017년 상반기(6월)에는 미조사.

○ (항목별) 경제행복지수의 항목별로 '경제적평등', '경제적불안', '전반적행복감'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경제적행복지수의 상승을 견인

- '경제적평등'은 28.0점, '경제적불안'은 31.8점, '전반적행복감'은 48.3점으로 모두 전회조사 대비 6~10점 가량 상승하였으며, '경제적발전'도 소폭 개선
  - '경제적평등'은 특히 20대 그룹이 체감하는 '경제적평등' 점수가 대폭 개선되면서 전회(16.12월) 16.7점에서 금회(17.12월) 28.0점으로 11.3점 상승
  - '경제적불안'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및 실업 불안이 완화되면서 25.2점에서 31.8점으로 상승
  - '경제적발전'은 경제적 생활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면서 46.2점에서 47.2점으로 소폭 상승
  - '전반적행복감'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전회 41.1% → 금회 26.0%) 38.2점에서 48.3점으로 상승하여 경제행복지수 개선에 크게 기여
- '경제적안정', '경제적우위' 등 2개 항목은 일부 하위 지표의 점수 하락으로 전회 조사 대비 소폭 하락
  - '경제적안정'은 '일자리·소득 체감 안정성' 하락으로 전회(16.12월) 53.3점에서 금회 52.4점으로 하락
  - '경제적우위'는 '경제적 열등감 경험' 증가로 51.4점에서 50.7점으로 하락하여 제9회 조사(11.12월) 이후 최저점을 기록

< 경제행복지수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직업별/연령별)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 이상 그룹의 행복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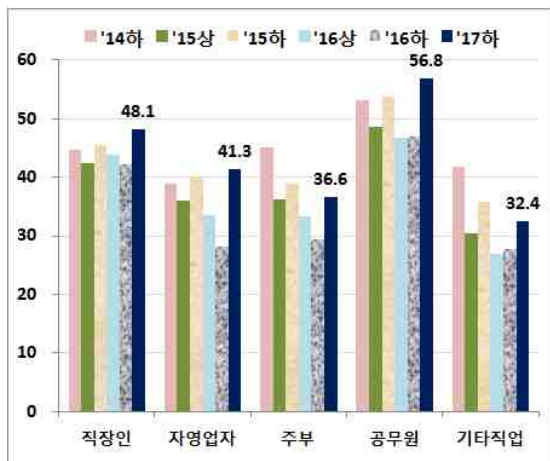
- (직업별) 모든 직업군에서 경제행복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조사 결과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이 5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직장인 48.1점, 자영업자 41.3점, 주부 36.6점, 기타 32.4점 순
- 자영업자의 경우 그간의 경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행복지수가 제14회 조사('14.6월) 41.9점에서 제19회 조사('16.12월) 28.1점까지 하락하였으나, 금회조사에서 41.3점으로 대폭 상승

- (연령별) 전 연령대에서 경제행복지수가 상승했으며, 40대와 60대 이상 그룹의 상승폭이 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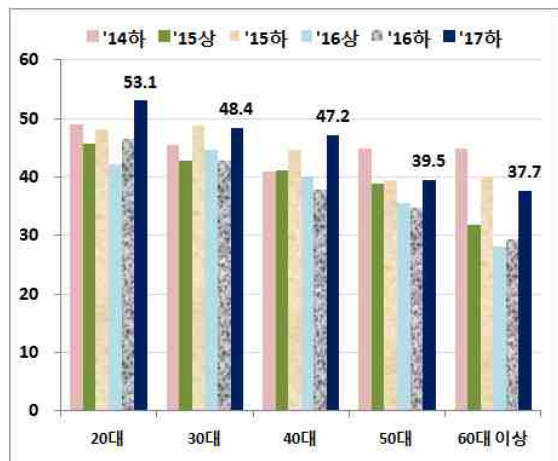
- 전회 조사에 이어 금회 조사에서도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20대'의 경제적 행복이 5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행복이 하락하여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37.7점을 기록
- 전 연령대에서 경제적평등 및 경제적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한 것이 경제적 행복이 높아진 요인으로 꼽힘
- 다만 '60대 이상'에서 '경제적안정'이 전회('16.12월) 43.3점에서 금회('17.12월) 36.5점으로 6.8점 하락하면서 경제적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직업별 경제행복지수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문직은 샘플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

< 연령별 경제행복지수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소득별/자산별) 모든 소득·자산별 그룹에서 경제행복지수가 상승했으며, 소득과 자산이 많아질수록 경제적 행복이 상승하는 경향이 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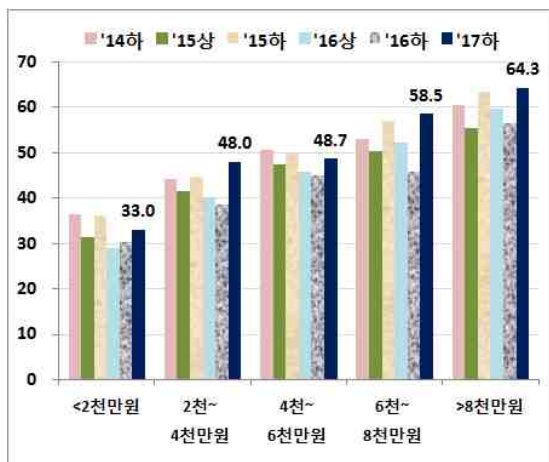
- (소득별) 모든 소득수준 별 그룹의 경제행복지수가 높아진 가운데, 고소득 계층의 경제행복지수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경제행복지수 격차가 심화

-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의 경제행복지수는 전회대비 7.9점 상승해 64.3점을 기록하였으며, 6~8천만원 중고소득 그룹의 경제행복지수는 전회 대비 12.7점 상승해 58.5점을 기록
- 2천만원 미만 및 4~6천만원 그룹의 경제행복지수도 각각 전회대비 2.8점, 3.7점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비교적 작은 편
- 특히 2천만원 미만 그룹의 경우 '경제적안정' 및 '경제적발전' 항목이 모두 전회대비 각각 8.8점, 8.2점 하락해 행복감 상승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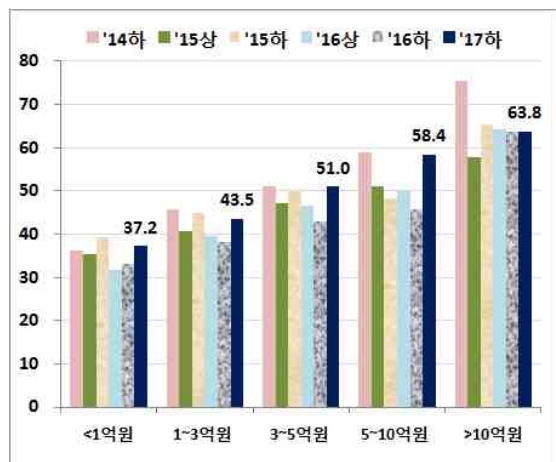
- (자산별)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들의 경제행복지수가 상승

- 자산규모 10억 미만의 모든 그룹에서 경제행복지수가 상승하였으며, 순서대로 5~10억 58.4점, 3~5억 51.0점, 1~3억 43.5점, 1억 미만 37.2점 등 기록
- 특히 자산규모 5~10억 미만 그룹의 경제행복지수가 전회대비 12.6점 상승하여 제15회 조사('14.12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
- 다만 10억원 이상 그룹의 경제행복지수는 전회와 동일한 63.8점을 기록

< 소득별 경제행복지수 추이 >



< 자산별 경제행복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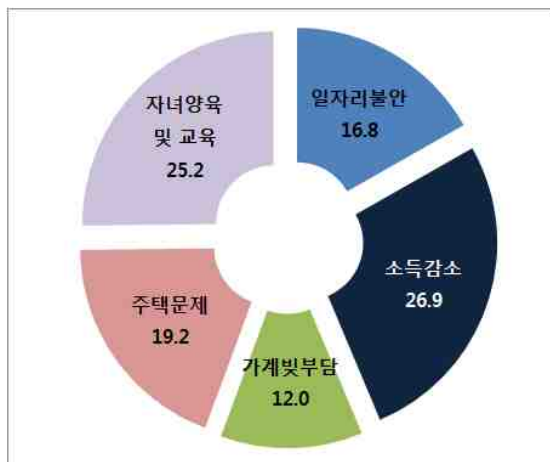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행복 장애 요인) 국민들은 '소득감소'를 가장 큰 행복 장애 요인으로 꼽았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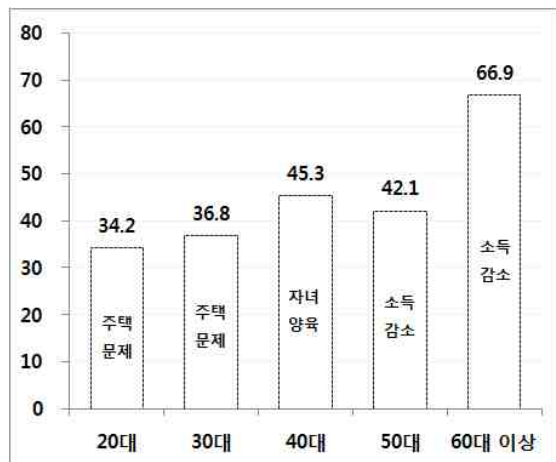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약 27%가 '소득감소'를 가장 큰 행복 장애 요인으로 선택
  - 전체 응답자(979명) 중 26.9%가 '소득감소'를 본인의 경제적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
  - 특히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는 자영업자, 주부,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그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25.2%), 주택문제(19.2%), 일자리 불안(16.8%), 가계빚 부담(12.0%) 순
  - 미혼, 20대 등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룹에서 '자녀양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직업별) 직장인과 공무원, (소득별) 연소득 2천만원 이상, (학력별) 대졸 이상은 모두 자녀양육을 가장 큰 행복의 장애요인으로 꼽음
- 생애주기별로 20·30대는 주택문제, 40대는 자녀양육, 50대 이상은 소득감소를 가장 큰 경제적 행복의 장애 요인으로 꼽음
  - 20대는 '주택문제'(34.2%)를 가장 큰 경제적 행복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며 '일자리불안'(30.8%)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을 준비하거나 노후생활에 접어든 50대의 42.1%와 60대이상의 66.9%가 '소득감소'를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

< 경제적 행복 장애 요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연령별 주요 행복 장애 요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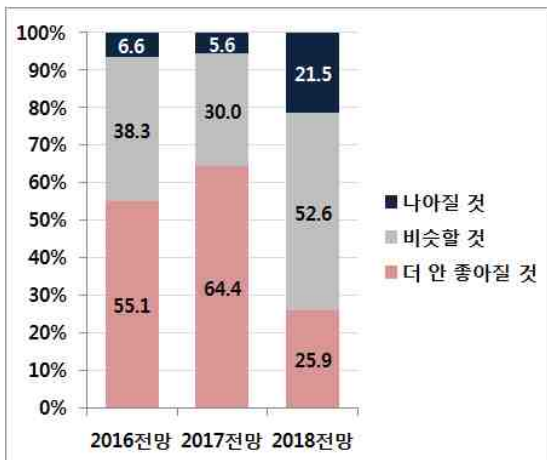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 2018년 경제전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 (2018년 전망)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가 금년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우선과제로 '경제 구조개혁'을 꼽음

- (경제 전망) 내년도(2018년) 우리나라 경기가 금년(2017년) 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률이 21.5%를 기록해 전년조사의 5.6% 대비 15.9%p 증가
  - 성별, 지역, 직업, 연령, 소득수준 등 응답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내년 경제가 금년대비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
  - 다만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25.9%를 기록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대의 경우 16.5%에 그쳤으나 60대 이상은 39.3%를 기록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년도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정부 정책 과제) 국민들은 2018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 조사결과 응답자의 37.6%가 2018년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구조개혁'을 꼽음
  - 새정부 출범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경제·사회 변화에 맞춰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구조개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 그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25.4%),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재정지출 확대(22.6%), 투자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규제개혁(14.3%) 순

< 2018년 경기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018년 정부 중점 추진 과제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현안 인식)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의 금리인상으로 소비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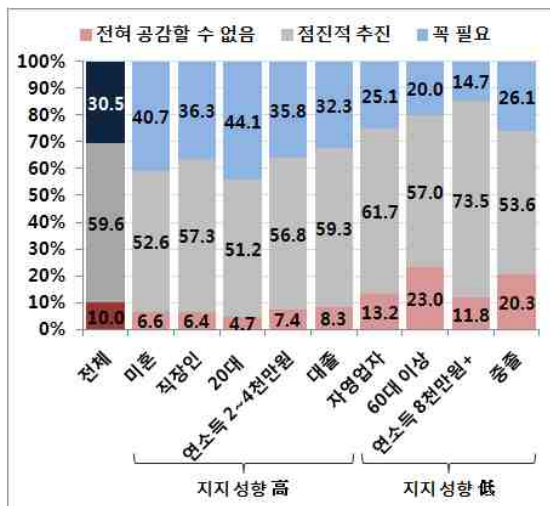
- (노동정책) 조사 결과,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꼭 필요하거나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로 나타남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자(1,004명)의 30.5%가 이러한 노동정책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응답
- 특히 미혼(40.7%), 직장인(36.3%), 20대(44.1%), 연소득 2천~4천만원 미만(35.8%) 그룹의 정책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 응답자의 59.6%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 (금리 인상) 응답자의 60% 가량이 최근의 금리인상에 따라 본인(가구)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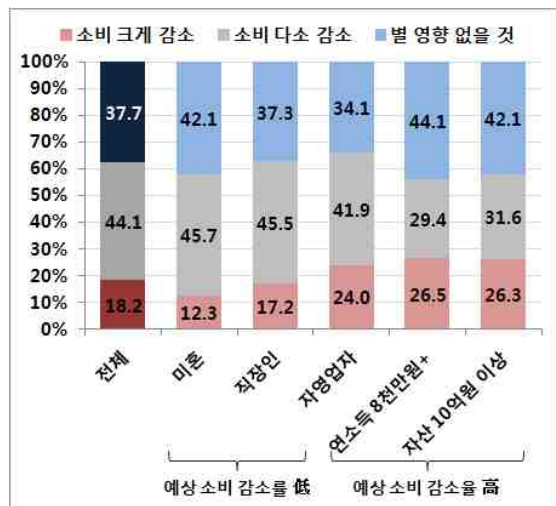
- 국내외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7년 11월 한국은행은 6년 5개월만에 금리인상을 결정
-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1,005명)의 18.2%가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 특히 자영업자(24.0%), 연소득 8천만원 이상(26.5%), 자산규모 10억원 이상(26.3%) 등 그룹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표시
- 또한 전체 응답자의 44.1%는 소비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3. 시사점

- 향후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 개선세를 지속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
  - 첫째,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안정감 향상을 도모
    - 전반적인 지표 개선세 속에서 '경제적안정'의 하위지표인 일자리 및 소득의 체감 안정성이 하락
    - 이에 대응해 일자리 및 소득 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정책 시행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불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이 느끼는 '경제적안정'이 비교적 큰 폭으로 저하된 바,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 둘째, 저소득층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
    - 금회 조사 결과,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제적발전' 점수가 급락하여 타 소득계층에서는 '경제적발전' 지수가 모두 개선된 것과 대조적
    - 한국경제의 회복·발전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저임금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
  - 셋째,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주거·양육·노후생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
    -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주택문제, 40대는 자녀양육, 노후 자금이 필요한 50대 이상은 소득감소를 가장 큰 행복의 장애요인으로 꼽아 생애주기별로 뚜렷한 니즈가 나타나고 있음
    -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교육·복지 등 관련 정책의 마련과 실행이 필요

- 넷째,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 산업과 기술 변혁이 촉발하는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사회 구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
  - 이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함
  -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 및 교육 제도 개편, 규제 개선을 통한 금융시장 역동성 제고, 공공 기초과학 연구개발(R&D) 혁신, 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규제 개혁 및 창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
  
- 다섯째, 향후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상당수 국민들이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은 경기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
  -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가계빚 부담 가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 강화, 고정·저금리 대출 전환 추진 등 대책 마련이 바람직**HRI**

전 해 영 연구위원 (2072-6241,hjeon@hri.co.kr)

<별첨 1>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기간 : 2017년 12월 4일 ~ 12월 16일 (13일간)
- 조사대상 :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 조사방식 : 전화 설문조사 (지역별 최소할당과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
- 오차범위 : 95%신뢰수준에서 ±3.09%p

○ 응답자 특성

전체	성별		연령별					학력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1,007명	504	503	127	250	248	247	135	69	238	661	39
%	50.0	50.0	12.6	24.8	24.6	24.5	13.4	6.9	23.6	65.6	3.9

전체	직업별						소득수준별 (연간, 만원)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무직, 기타	2천 미만	2천~4천	4천~6천	6천~8천	8천 이상
1,007명	518	167	141	10	103	67	275	459	185	50	34
%	51.4	16.6	14.0	1.0	10.2	6.7	27.3	45.6	18.4	5.0	3.4



## <별첨 2> ‘경제행복지수’의 개요

### ○ ‘경제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경제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 ‘경제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 ‘경제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행복지수를 산출함

###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

		이론 및 근거	내용
①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②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③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④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구성됨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행복 예측지수’)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의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가중치 0.5 적용)에 50을 더하여, 5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5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이 나오고 여기에 가중치0.5를 곱하고, 50을 더하면 ‘예측지수’는 6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 ‘경제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